



## 1, 2부 예배 SERVICES

인도: 1부 이상재 목사(Rev. Sangjae Lee)  
2부 신기성 전도사(Pastor Kiseong Shin)

- **입례찬송** 40장  
Opening Hymn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We Are Never, Never Weary

-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 **찬송** 564장  
Hymn 예수께서 오실 때에  
When He Cometh

## 3부 예배 SERVICE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기도  
Prayer

1부: 조희일 장로  
2부: 김연희 권사  
3부: 이영우 권사

찬양 '예수 사랑 하심은' Arr. by 진선미  
Anthem Jesus Loves Me

1, 2, 3부 찬양대

환영 인사 및 광고  
Welcome & Announcement

- **영광송 & 봉헌**  
Doxology & Offering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Mark) 10:13-16

설교  
Sermon

"어린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Children Have the Right to Be Loved

김정호 목사  
Rev. Chongho Kim

- **결단 찬송**  
Hymn of Response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 **축도**  
Benediction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at the mark

**01. 안내 Welcome to FUMC**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와 교제의 시간이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 생방송 예배: <https://www.fumc.net/live>

**02. 5월 소그룹 리더 교육**

\*일시: 5월 5일 (오늘) 12:50pm \*장소: 교육관 3층 예배실

\*강사: 담임목사

\*대상: 모든 소그룹 리더(교구장, 속·부속장, QT리더, 믿음의 친구들 리더 등) 및 소그룹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교인

**03. 중고등부(Youth) 프로그램 안내**

1) 졸업생 비전캠프

\*일시: 5월 31(금) - 6월 1일(토) / 등록 링크: [bit.ly/fumccr24](http://bit.ly/fumccr24)

2) 여름수련회

\*일시: 6월 30일(일) - 7월 2일(화) / 등록 링크: [bit.ly/fumcygsr24](http://bit.ly/fumcygsr24)

**04. 2024 섬머스쿨(Summer School) 안내**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했던 섬머스쿨을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광고바랍니다.

\*기간: 2024년 7월 1일(월)~8월 9일(금), 6주간

\*대상: K~5학년 \* 모집 인원: 50명(선착순)

\*시간: 08:30am~3:30pm(월~금)

\*등록비: \$1,000 \* 문의: 목회실(718-939-8599)

**05. 교육부 5월 행사 안내**

\*유아유치부: 어린이주일 선물 증정(5/5)

\*유초등부: 어린이주일 달란트 시장(5/5)

\*중고등부: 어머니주일 꽃 달아드리기(5/12)

\*교육부: 스승의 주일 행사(5/19)

**06. 인권, 정의, 평화 순례**

미국 민권 운동의 선구자들인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사 파크 여사의 민권 운동 현장,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사랑의 집 짓기' 현장, 그리고 기독교적 삶을 실천하려는 신앙공동체 코이 노니아 팜(Koinonia Farm) 등을 순례하기 위해 조지아주와 앨라배마 주를 방문합니다.

\*일시: 6월 3일(월) ~ 5일(수) \*인원: 5명(선착순)

\*회비: 추후 공지 \*신청: 목회실(718-939-8599)

**07. 다니엘 성극 관람(Sight & Sound)**

\*일시: 5월 7일(화) 6:30am 출발 \*회비: \$150(티켓 및 버스비 포함)

\*신청인원: 50명(선착순) \*신청 및 문의: 목회실

**08. 5월 남·여 선교회 월례회**

5월 12일(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09. 큐티리더 ZOOM미팅 안내**

매주 화요일 08:00pm에 진행하던 큐티리더 ZOOM미팅을 잠시 쉽니다.

**10. 주차장 이용 안내**

주일예배시 차량이용 증가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새가족 및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가나안 주차장과 월드 주차장을 먼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측 지도 참조)

**11. 신앙의 BASICS 캠페인**

1) 예배시작 10분 전 도착하기, 예배시작 전 핸드폰 진동으로 하거나 끄기.

2)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주일예배 참석하기

3) 속회, QT모임, 믿음의 친구들 참석하기

4) 소그룹리더교육, QT리더 ZOOM미팅 참석하기

5) 대표기도, 헌금위원 등 교회 사역 적극 참여하기

6) 성경일독표 따라 성경읽기, 성경퀴즈 참여하기

**<수요예배 안내> Wednesday Service**

매주 수요예배는 '사도행전 강해'가 이어집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설교: 신기성 전도사
- \* 수요일 저녁: 8시 / 생방송 <https://www.fumc.net/live>

**<새벽기도회 안내> Early Morning Service**

큐티 교재 (기쁨의 언덕으로) 사용 / 새벽 6시 (월~토)  
 \* 새벽 6시 /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umc.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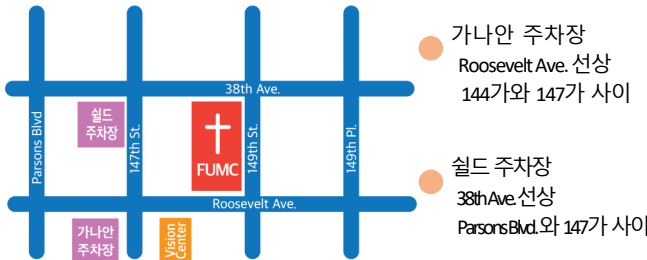
**<설교 안내>**

5/5 어린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마가10:13-16
5/12 자녀사랑 부모공경	말라기 4:4-6; 에베소6:1-4
5/19 어른이 되어야 한다	고전 13:11
5/26 예수님 가족	마태 12:46-50

**<주일예배 대표기도 및 헌금 담당> Sunday Service prayer**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3부 기도
5/5	조희일 장로	김연희 권사	이영우 권사
5/12	박엑스더 권사	하용화 장로	이옥순 권사
5/19	연성흠 권사	이한수 장로	최형무 장로

<b>헌금위원</b>	김광숙 집사	양영자 권사	곽윤순 권사
-------------	--------	--------	--------



-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 쉴드 주차장  
38th Ave. 선상  
Parsons Blvd.와 147가 사이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live/>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예배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시간	종류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 (영어)	1:00 pm	소예배실
::5부	2:30 pm	소예배실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시간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Vision Center)	시간
중등부(6-8)	11 am
고등부(9-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제일유아원 10 am (T-F)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휴교합니다.)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87.7 (엠펙 FM877)

주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9 p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9 pm  
 cbsn ([www.cbsnnewyork.net](http://www.cbsnnewyork.net))  
 -9am/7pm

Danbi Christian TV(Spectrum Ch. 1487)

NY 주일 10 pm  
 월요일 12 pm(정오)

LA 주일 7 pm  
 월요일 9 am

하나님만 하나님 됨을 알아야 하는 때

담임목사 김정호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주제로 4/23-5/3일 두 주간 살롱에서 모였던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파란만장했던 동성애자 목사 안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이로부터 애매했습니다. 2024년에 모이면서 ‘2020년 총회’라고 이름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온 세상 문을 닫게 만든 세계적 유행병(pandemic) 때문에 모이지 못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10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입니다. 주제와 달리 사람들이 가만히 있거나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우리 교단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십니다.

총회는 앞으로 4년간 총예산 3억 7,340만 달러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와 필리핀 각 지역의 현실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가 통과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는 ‘한 성인 남자와 여자 또는 두 성인’으로 개정되었고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목사 후보 안수 금지 조항과 동성 결혼식을 집례하는 목회자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목사가 되는 길을 열었지만, 동성애를 지지하는 문구로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교회나 목사들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1. 감독은 파송 시 해당 교회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를 파송한다. 2. 동성 결혼 주례 및 장소 제공 여부 권한은 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어떤 교회나 목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동성애와 관련된 안건이 93%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교단의 보수 입장을 고수해 왔던 우리 한인들보다 더 전통적 신앙을 가진 아프리카 대표들이 지지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논쟁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총회 참석한 한인 지도자들은 모여서 교단의 이런 변화에 대해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자고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그 결단을 실천하고자 한인총회 회장단은 현재 교단 세계선교국(GBGM)에 속한 140명 선교사 모두에게 최소한 한 달에 \$100달러 이상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상징적 제스처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총회를 마치면서 전도서 말씀의 때(time)를 생각했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3:1) 그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너진 것을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이루고 사랑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며칠 전 ‘신념은 지성이 아니다(차정식 교수)’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신앙고백이자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교수를 징계하려고 한 사건에 관해 쓴 것입니다. 차교수는 참된 신앙에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신념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와 논리로 분석하고 의미를 따지고 해석하는 사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총회를 마치고 빅터튼 감독께 “이런 결정을 하면 고생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일선 목사들인데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찌 모르겠어요. 그대와 후러싱교회제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합니다. 뉴욕연회 총대들도 후러싱제일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우려하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 연합감리교회나 연합장로교회와 같은 교단은 성경의 진리와 성령을 떠났으니 교회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있더군요. 성경은 물론 성령은 어느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양 그런 말 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삶의 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과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물과 개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미시간 호수 애틀랜타에서는 차타후치 강을 즐겼습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대서양 바다에 자주 나가서 걷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때로 삶의 지혜와 방식이 다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는 우물, 강, 호수, 바다 각양각색의 삶의 현장에서 존재합니다. 후러싱제일교회는 미국 뉴욕이라는 바다와 같은 도시에 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기회와 동시에 위험 가능성이 큼니다. 그리고 우물이나 연못의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물은 고이면 썩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이 생수의 강 되어 흐르는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 나가 먹고 살아야 하는 아이리쉬 어부들의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다는 너무 크고 우리가 탄 배는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떤 파도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파도타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